



임진왜란기 경상도지역 사족의 상·제례喪·祭禮 시행양상과 의미*

신진혜**

1. 서론
2. 임진왜란기 제례祭禮 시행 양상
3. 피난과정에서의 상례喪禮 시행 사례
4. 결론

요약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시기는 혼란으로 인해 예제禮制가 문란해졌던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는 금난수琴蘭秀의 『성재일기惺齋日記』, 정경운鄭慶雲의 『고대일록孤臺日錄』, 도세순都世純의 『용사일기龍蛇日記』, 장현광張顯光의 『피난록』과 「분찬중사망의략奔躑中事亡儀略」과 같은 경상도 지역의 일기자료를 중심으로 전란 당시의 상례喪禮와 제례祭禮가 어떻게 수행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하면서 약 7년간의 전란기를 단순히 ‘예학의 공백

* 본 연구는 2021년 한국국학진흥원 고전국역서 활용 학술연구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토론을 맡아주신 장동우 교수님과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申眞惠,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조교수

기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조는 전란 중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상복입은 백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상례가 문란해진 것이라 의심했지만, 장현광이 피난중에 상례를 시행했던 모습을 보면 피난중인 백성들이 상복을 입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기자료를 바탕으로 경상도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란 피해로 제수를 마련하기 어렵더라도 간소하게 제사를 지속하려하였고, 피난 중에도 어렵게 상례를 수행하려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록 전란기에 이론적 측면의 예측발전은 어려웠지만, 경험적 측면에서 비밀상적 상황에서의 의례경험을 축적해나가고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주제어

: 임진왜란, 상례喪禮, 제례祭禮, 금난수琴蘭秀, 성재일기惺齋日記, 정경운鄭慶雲, 고대일록孤臺日錄, 도세순都世純, 용사일기龍蛇日記, 장현광張顯光, 피난록避難錄

1. 서론

임진왜란에 관한 연구는 전쟁의 규모나 피해, 의병활동이나 국가간 교섭과 같은 주제를 넘어, 다양한 현전 일기자료를 바탕으로 전란 당시 각 지역별 사족의 삶에 관한 연구로까지 이어졌다.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담은 일기자료의 현전 상황과 자료 자체의 가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¹ 일기의 내용분석을 통해 전란 피해가 지역에 따라 상이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전란기에 대한 일률적 인상에서

1 최은주, 「조선시대 임진왜란 일기자료의 현황과 傳存 양상」, 『한국민족문화』 77(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이성임, 「16~17세기 일기의 傳存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89(조선시대사학회, 2019).

벗어날 수 있었다.²

이처럼 전란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규명해냈지만, 사족 가문의 일상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유교적 의례가 임진왜란기에 어떻게 수행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드물다. 전란의 과정에서 국가의 허락없이 기복(起復)하고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등 상례(喪禮)가 무질서해지고 유교적 관습과 질서가 붕괴된 틈을 타고 불교와 민간신앙적 관습이 번성했던 상황에서, 문란해진 국가질서를 재건하기 위해 예학의 필요성이 제고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16세기 이후 예학발전이 촉진되었다는 선행연구가 제시된 바 있다.³ 하지만 이후 일기자료 연구가 진전되면서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침입과정과 이동 경로에 따라서 지역별 피해규모와 양상은 제각각이었고, 피해규모가 적은 지역에서는 일상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의 의례시행 양상 역시 조선 전역이 일률적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임진왜란 이전부터 예학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고 있었고, 전란 이후인 17세기에 이르러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사실은 규명되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이어졌던 7년의 전란기 당시 의례 시행양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전란 당시 과연 의례는 정체되거나 와해되기만 했었는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임진왜란기 사족의 피난생활 양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례 시행에 대해 부수적으로 서술되기도

2 노영구, 「총론: 전쟁과 일상 — 『孤臺日錄』을 통한 임진왜란 이해」, 『역사와 현실』 64 (한국역사연구회, 2007).

3 고영진, 『조선중기 예학사상사』(한길사, 1995).

하였지만,⁴ 아직 임진왜란 당시의 의례 시행에 대해 단독적으로 주목한 연구는 많다고 보기 어렵다.⁵ 7여 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전란을 경험하면서 과연 사족 가문에서는 상례와 제례를 어떻게 시행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이미 검증한 바와 같이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은 지역별로 판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전체의 지역 및 사족 가문의 양상을 모두 다루기보다는, 우선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일본군은 선조 25년(1592) 4월 14일에 부산포에 상륙하여 중로中路·좌로左路·우로右路로 나뉘어 북상하였다. 중로는 대구-인동-선산을 거치고, 우로는 현풍-성주를, 좌로는 의흥-군위를 거쳤는데, 특히 상주-선산-인동-대구-청도-밀양-동래-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상도의 주요 요충지는 일본군에 의해 가장 먼저 점령되고 가장

4 문숙자, 「임진왜란으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 『임진왜란과 한글관계』(경인문화사, 2005); 박인호, 「임진왜란기 지방 지식인의 피난살이 — 장현광의 『용사일기』를 중심으로」, 『여헌학의 전개와 수용』(보고사, 2010), 120~121쪽; 이훈상, 「어느 지방 吏胥의 임진왜란 증언과 전승 — 경상도 인동의 향리 劉席珍과 그의 임진왜란 일기」, 『영남학』 21(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2); 김성우, 「임진왜란 시기 구미지역의 참상과 전쟁의 극복 양상」, 『역사학보』 230(역사학회, 2016); 김성우, 「임진왜란과 1593~1594년 계갑대기근 — 경상도 성주 도세순 집안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88(한국사연구회, 2020); 정해은, 「임진왜란 시기 경상도 사족의 전쟁 체험」, 『역사와 현실』 64(한국역사연구회, 2007); 원창애, 「『고대일록』을 통해본 함양 사족층의 동향」, 『남명학연구』 33(경상대 경남문화연구소, 2012).

5 김경숙,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제사설행과 그 성격 —李文樞의 『默齋日記』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98(일지사, 2000); 송재용, 「『목재일기』와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의 관·훈·상·제례」, 『한문학논집』 30(근역한문학회, 2010); 우인수, 「17세기초 경당 장흥호 가문의 제사 관행」, 『국학연구』 21(한국국학진흥원, 2012); 신진혜, 「임진왜란기 張顯光(1554~1637)의 피난 중 喪·祭禮 시행양상」, 『韓國實學研究』 40(한국실학학회, 2020).

늦게 철군한 지역이었다.⁶ 이러한 측면에서 임진왜란기의 상황을 담고 있는 경상도 지역의 일기자료는 당대 피해상과 의례양상을 검토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일기자료는 금난수琴蘭秀(1530~1604)의 『성재일기惺齋日記』, 정경운鄭慶雲(?~?)의 『고대일록孤臺日錄』이다. 이항의 제재였던 금난수의 『성재일기』는 임진왜란 시기 의병 활동을 지원하면서 조정으로부터 전해지는 소식과 직접 목도한 사실을 일기로 기록했다는 것이 특징이다.⁷ 『성재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상례나 제례에 관한 내용은 예안과 안동지역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경운의 『고대일록』은 임진왜란 초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규모가 적었지만 정유재란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던 함양지역의 상황을 확인하기에 용이한 자료이다. 또한 성주지역 도세순都世純(1574~1653)의 『용사일기龍蛇日記』와 인동지역 장현광張顯光(1554~1637)의 『피난록避難錄』과 「분찬중사망의략奔竄中事亡儀略」을 참고하고자 한다.

경상도 지역 일기자료에 드러난 관혼상제冠婚喪祭 가운데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의 시행양상을 중점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일상에서 주기적으로 시행되었던 제례와 갑작스럽게 수행되어야 했던 상례가 전란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해보기 위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란이라는 비일상적인 상황이 사족의 의례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검토하면서 과연 7년의 전란기를

6 이에 관해서는 김성우, 「임진왜란 초기 制勝方略戰法の 작동방식과 상주 북천 전투」, 『한국사연구』 163(한국사연구회, 2013), 225~246쪽.

7 이연순 외 5명, 『성재일기 — 16세기 재지 사족의 올곧은 삶과 문화의 기록』(은행나무, 2020).

예학의 공백기로 간주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단초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2. 임진왜란기 제례祭禮 시행 양상

선조 25년(1592) 5월, 조정에서는 파천길에 나서는 혼란 중에도 종묘의 신주를 모시고 떠났다. 하지만 종묘의 신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리없이 지켜졌던 것이 아니었다. 종사宗社의 신주와 위판을 옮기다가 위기에 처할 것을 염려해 일단 땅속에 묻어두고 떠났다가 이후에 되찾자는 의견과, 끝까지 신주를 모시자는 의견이 충돌을 거듭했다. 또한 힘겹게 신주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도 정주할 때마다 신주를 꺼내두었고 임시 봉안처에서 위안제를 행하거나, 전알展謁을 위해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새로운 식물食物을 얻으면 천신을 행하는 일이 논의되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천신의 경우 본래 담당하던 관원이 부재하거나 절차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함부로 시행하지 않았다.⁸

이처럼 왕실에서는 긴급한 피난상황에도 조상의 신위에 대해 예를 다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동일한 시기를 경험했던 사족들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상도 예안지역의 금남수는 전란 이전부터 제례에 있어, 가묘에서 행하는 사시제四時祭와 삭망례朔望禮를 실천했으며, 시기에 맞추어 기제忌祭

8 신진혜, 「임진전쟁기 종묘의 소실과 재건 과정 연구」, 『역사학보』 240(역사학회, 2018), 379~402쪽.

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증조부모를 모시는 가음 산소와 재사齋舍, 그리고 조부와 부모님을 모신 백운지 산소와 재사에서 정기적으로 배소拜掃하였다는 사실이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되었다.⁹ 그렇다면 전란기라는 특수한 상황에는 이러한 일상적 제례를 어떻게 유지했는지에 대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기인 1592년부터 1598년까지의 『성재일기』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선조 25년(1592) 4월 12일 부산에 일본군의 배가 나타났고 4월 13일에 일본군이 육지에 상륙하여 동래를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부터,¹⁰ 금난수가 조상의 기제와 산소를 배소하는 일을 어떻게 시행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금난수의 제례祭禮 및 배소拜掃 시행 양상

日記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忌祭	曾祖				9월 8일		
	祖父		4월 28일	4월 28일	4월 28일	4월 28일	
	祖母				5월 9일	5월 9일	
	父	5월 13일			5월 13일	5월 13일	5월 13일
	母			1월 29일		1월 29일	
	子 (4男)					8월 25일	

9 금난수의 일생과 행적에 관한 내용을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박종천, 「해제 『성재일기』(한국국학진흥원, 2019), 37쪽; 박현순, 「愷齋 琴蘭秀의 수학과 교유」, 『역사문화논총』 4(역사문화연구소, 2008); 이연순, 「愷齋 琴蘭秀의 생애와 교유 양상 고찰—성재집과 성재일기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41(한국국학진흥원, 2020); 김종석, 「성재일기에 나타난 16세기 재지 사족의 교유 양상」, 『국학연구』 41(한국국학진흥원, 2020).

10 『愷齋日記』 선조 25년 4월 12일·13일.

日記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拜掃	가음 산소	12월 27일	3월 4일 12월 26일	2월 16일 12월 27일	5월 3일 8월 12일	3월 8일 5월 3일 8월 13일 12월 27일	2월 19일 5월 3일 8월 13일 12월 27일
	백운 산소	5월 4일 8월 14일 12월 25일	3월 5일 12월 28일	2월 15일	2월 27일 5월 4일 8월 13일	3월 9일(진) 5월 3일 8월 14일 12월 26일	2월 20일 5월 4일 8월 14일 12월 28일
家廟	展拜		1월 1일				
	奠			1월 1일		2월 13일 5월 5일	
	時祭/ 茶禮		7월 15일 (차례) 8월 1일 (차례)	8월 1일 (차례) 11월 3일 (차례)		2월 15일 (제사)	11월 24일 (시제)

일본군의 상륙소식을 접한 금난수는 식구들을 데리고 백운으로 이동하였고, 장사곡長蛇谷에 숨어살 곳을 살펴보았다. 금난수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안전한 곳을 찾아 움직였고, 금난수의 아들 금경琴標도 서울에서 돌아와 당시의 상황을 전하였다. 당시 예안현감 신지제申之梯(1562~1624)의 본가가 일본군에게 해를 당하였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고 한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금경은 5월 4일 백운 산소에 성묘하는 것을 잊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금난수는 5월 13일에 부친의 기제를 지냈다.¹¹ 일상시와 똑같은 절차를 갖추어 기제를 지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록이 자세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지만, 전란의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허락되는

11 『惺齋日記』 선조 25년 5월 1일·4일·13일.

선에서 조부모와 부모의 기제를 시행했고, 일찍 사망한 아들 각계의 기제를 챙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조 25년 6월부터 금난수의 피난 생활이 이어졌는데, 6월 16일에 이르러 용궁에서 일본군과 싸워 패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6월 23일 산에 올라가서 숨을 곳을 살펴보고 축융봉에 올랐다가 원도산에 들러 보굴을 찾아보고 돌아온 후, 6월 28일 새벽에 식구들을 데리고 월명담 가의 석굴로 가서 숨었다. 그리고 7월 1일 일본군이 본현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금난수의 아내가 반구대 위쪽 석굴로 올라갔고 금난수도 이튿날 석굴에 따라 올랐다. 일본군이 경암 길을 경유하여 고산에 들어가 인가를 뒤져 많은 물건을 실어갔고, 산성과 일동에 묻어둔 물건을 파내고 말을 약탈해갔다는 소식을 들으며 석굴에 머물다가 다시 용두절벽으로 옮겨가 피하였다.¹² 이 시기에는 여타의 성묘나 기제를 행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금난수는 8월 9일에 이르러서 백운으로 와서 8월 14일에 백운 산소에 성묘했으며, 그 이후로는 교류하던 사람들을 만나고, 주변 사람들의 초상에 전을 올리기도 하였다. 10월 13일 식구를 데리고 부포로 내려왔다가, 진사 이대용이 사망한 후 그의 초상에 성복할 때 전을 올렸다. 그리고 11월 24일에 딸의 산소를 살피고, 12월에 이르러서는 가음과 백운 산소에 성묘하는 일을 회복하였다. 이듬해인 선조 26년 1월 1일에는 가묘에 전을 올리고 서원에 알묘하였고, 산소에 성묘하는 일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금난수의 증조부모와 조부, 부모님을 모신 산소를 배소했을 뿐만 아니

12 『惺齋日記』 선조 25년 7월 1~4일·7일.

라, 처가의 산소를 찾아가거나 기제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선조 26년(1593) 금난수는 월천에 있는 산소에 성묘하였고,¹³ 선조 29년(1596)에는 장인의 기제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금난수의 부인이 장모의 기제를 지내러 직접 다녀왔고, 금난수의 아들 금업이 시제時祭를 돕기도 하였다.¹⁴ 다만 처한 상황과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던 장현광의 『피난록』과 비교했을 때, 『성재일기』는 사실을 간결하게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전란의 피해를 입은 직후에 기제를 어떻게 시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선조 27년(1594) 금난수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신주에 술잔을 올렸다고 기록하였는데,¹⁵ 자손이 자신의 생일에 조상에게 전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후대에도 여러 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 송시열宋時烈(1607~1689)은 부모에게만 올릴 것인지 아니면 모든 신위에 올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고, 자손이 많고 일일이 전을 올린다면 번독煩瀆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반문하며 감히 단언할 수 없다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¹⁶ 이에 반해 정구鄭逵(1543~1620)는 “자기의 생일에 비통한 마음이 절실하다면 생존시처럼 조출하게 술과 과일을 올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 하며 생일에 선조에게 전을 올리는 것을 용인하였다.¹⁷ 금난수는 이듬해인 선조 28년(1595) 생일에는 사람들과 모여

13 『惺齋日記』 선조 26년 12월 30일.

14 『惺齋日記』 선조 29년 4월 24일, 5월 19~20일, 8월 28일.

15 『惺齋日記』 선조 27년 2월 13일.

16 『宋子大全』卷114, 「答洪聖休」. “今茲子孫之生日, 雖異於先世祖父之生日, 其難便者亦有數件. 將獨設父母耶, 抑並設於諸位耶. 若子孫衆多, 而一一薦享, 則無乃煩瀆耶. 此有所不敢知者, 不敢質言耳.”

17 『寒岡先生別集』卷2, 「答問」. “己之生日, 既切悲痛之感, 則象生時略伸酒果之奠,

술을 마셨을 뿐 신주에 술을 올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아 일상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¹⁸

이처럼 금난수는 일본군이 가까이 침입하여 숨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에는 예를 다하지 못하였지만, 그 외에는 산소를 찾아가 배소하고 기제를 수행하기도 하면서, 전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일상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대일록』을 남긴 정경운은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의병활동에 참여하였고,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 당시에는 피난길에 올라 9월 진안-용담을 거쳐 선조 31년(1598) 4월에는 전라도 익산으로 피난했다가 선조 32년(1599) 3월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쳤다. 정경운의 전란 경험을 통해서는 의병활동과 피난이라는 두 가지 상황에서 상제례를 어떻게 봉행했는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임진왜란 초기에 함양지역은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정유재란기에는 진주성이 함락된 영향을 받아 함양 역시 일본군의 침입에 노출되었고 피난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상황은 전란 초기에는 의병활동을, 정유재란기에는 피난생활을 경험했던 정경운의 『고대일록』에서 잘 드러난다.¹⁹

정경운은 전란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대일록』에 제례 시행과 관련한 다수의 기록을 남겼는데, 기록의 내용은 대략 제수祭需가 부족한

何妨?” 그리고 安珮(1569~1648)은 安餘慶(1538~1592)의 설에 근거하여 ‘祭禰’의 항목에 ‘孝子生日祭祖考妣·考妣儀’·‘支子於生日祭祖考妣·考妣儀’를 보완한 바 있다. 『家禮附贅』 卷6, 「禰」.

18 『惺齋日記』 선조 28년 2월 13일.

19 원창애, 앞의 논문, 2012, 238쪽.

상황에도 예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 당형의 조부모 기제 시행을 계속 염려했다는 것, 정경운이 장인·장모의 기제까지 대신해주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경운의 제례 시행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정경운의 제례 시행 양상

연도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忌祭	祖父		12월 30일		5월 15일	5월 15일	5월 15일	
	祖母		12월 10일	12월 10일				
	父	5월 18일		5월 18일	5월 18일	5월 18일		
	母					1월 29일	1월 29일	
	先兄				3월 3일			
	丈人		5월 26일		5월 26일	5월 26일		
	丈母				11월 26일			
	外祖父					2월 14일	2월 14일	2월 14일
	外祖母				12월 23일	12월 23일		
家廟	祭祀/ 薦新			8월 14일 (제사) 11월 27일 (천신)	7월 28일 (천신)	5월 5일 (제사) 7월 23일 (천신, 고유)		
	除夕祭	除夕祭			12월 29일	12월 29일		

정경운은 전란으로 궁핍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임진왜란 발생 초기에는 상제례에 대한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선조 25년 5월 18일에 노사상盧士尙(盧志夫)이 향촌의 사람들과 모여 의병을 일으킬 때 정경운은 부친의 제사라 참석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추론해보면 정경운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선대조의 제사를 봉행하기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전란기에도 기일로 인한 부재가 자연스럽게 용인되었던 양상에 대해 효의 실천 자체를 자긍심으로 여겼던 사족들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의례행위를 지속하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²⁰ 전란 종식 이후의 사회질서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예가 강조되었던 맥락을 바탕으로 본다면 설득력있게 다가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란이 진행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부친의 기제를 수행하려 했던 것은 사족으로서의 위상을 자부하는 태도라기보다 이미 성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내재화된 바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²¹ 이후 기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애통해하는 정경운의 모습 역시 그런 양상을 방증한다.

그 이후 상례나 제례에 대한 기록이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선조 26년 5월 26일에 장인의 기제를 시행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²²

비가 내렸다. 오늘은 바로 장인의 제삿날이었다. 하지만 집이 왜적들에 의해 불타 없어지는 바람에 처형妻兄 등은 모두 타향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나는 단지 술과 과일을 준비해 허위虛位에 제사를 지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를 통해 당시 상황이 열악했음에도 처형 등이 모두 타향으로 흩어져

20 정해은, 앞의 논문, 95~97쪽.

21 사족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이라기보다는, 성리학적 이해의 성숙을 바탕으로 사람에게 내재화된 仁義禮智를 실현하려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다. 『孟子集註』卷11, 告子章句上.

22 『孤臺日錄』卷1, 계사 5월 26일.

서 장인의 제사를 받들 사람이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략의 제수를 마련하여 장인의 빈 신위를 두고 기제를 시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정경운은 부모뿐만 아니라 장인과 장모의 기제까지 수행하였는데, 이는 처가에 제사를 받들 사람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정경운은 선조 25년 12월 14일에 이르러 11월 26일에 돌아가신 장모의 부음訃音을 뒤늦게 듣게 되었다. 처형 김득운金得允과 김득지金得智가 장모를 모시고 피난하였는데 중풍이 재발한 장모가 속리산에 지어둔 초막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고, 산속에 임시로 빈소를 설치했지만 김득운과 김득지가 주변과 소식을 끊다시피하고 살았기 때문에 정경운은 뒤늦게야 장모의 부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²³ 비록 임시 빈소를 설치하고 수행한 상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피난 시기에 상이 발생하더라도 피난지에서 빈소를 두고 예를 다했던 하나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도 정경운은 선조 28년 5월 26일에도 장인의 제사를 지냈으며, 같은 해 11월 26일에는 장모(氷母)의 위상에 제사를 봉행했다. 장인·장모의 내외자손內外子孫이 모두 사망하고 그나마 정경운의 아내만 생존한 상태였기 때문에 장모의 기일을 기억하여 제사했음을 밝히면서, ‘슬프고 슬프도다’라며 당시의 감정을 가감 없이 기록하였다.

정경운은 선조 26년 7월 15일에 집으로 내려가 가묘家廟를 살펴보았는데 창호窓戶와 문호門戶·병풍屏風·책자冊子 등의 물건은 모두 명나라 군사들이 가져갔고, 대나무 지팡이조차도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23 『孤臺日錄』 卷1, 임진 12월 14일.

상황을 전하면서, ‘눈에 보이는 비참한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증오심을 품도록 하기에 충분했다’는 소회를 드러냈다. 명나라 군대는 백성들의 침탈을 금하도록 명령했음에도 군졸들은 명을 어기고 재물을 토색했고 일본군도 분탕질을 지속했는데,²⁴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미쳤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조부모의 제사를 유지했는데, 선조 26년 12월 10일 조모의 제사였음에도 사촌형(堂兄)이 빈곤하여 제사를 지내지 못했음을 애통해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조부의 기제에 대해서는 선조 29년 5월 15일 조부의 기일인데 사촌형(從兄)이 가난하여 제사 지낼 방도가 없었다며 비참하게 여겼고, 이듬해인 선조 30년 5월 15일에는 할아버지의 기제를 지냈는데 제수가 형편없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정유재란 당시인 선조 31년 5월 15일 조부의 기일에 대해서는 ‘사촌형이 제수를 진설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정경운 본인 역시 돈이 다 떨어져서 제물(祭物)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고 기록하였다.

『고대일록』에 조부모의 기제 시행 사실을 모두 정확하게 기록한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사촌형이 기제를 봉행했다는 사실을 단면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란기 피해로 인해 제수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했는데, 본인이 제사를 받들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상황이라해도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이 대신하는 경우가 『고대일록』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정경운은 『고대일록』에서 빈곤하고 부족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24 『孤臺日錄』 卷1, 계사 7월 15일.

자주 언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족한 상황이었는지, 부족한 제수를 대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의 몇 가지 기록을 통해 상황을 엿볼 수 있다.²⁵

여러 해 계속된 전염병 때문에 제사에 쓸 물품을 갖출 수 없었으니, 변변치 못한 물건으로써 애통한 마음을 한 번 표시할 따름이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죽은 이의 영이 그 자리에 계시는 듯이 정성을 드려야 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되었으니, 슬픈 마음에 종일토록 서글펐다.

조모님의 신위神位에 제사를 드렸다. 집안이 가난하고 정성이 박하여 제물이 빈약하였다. 당형堂兄과 종질從姪이 어찌 그 책임을 면하겠는가.

아! 지난날 태평한 시절에는 사시四時의 명절名節에 소를 잡는 자가 즐비하게 있어서 제사에 쓸 고기는 걱정하지 않았는데, 몇 년 사이에 소가 기린麒麟처럼 귀하여 제수품祭用品은 싹 쓸어버린 듯하다. 새벽부터 밤까지 물로 산으로 가는 것을 꺼리지 않았어도 끝내 얻지 못했으니, 한탄스럽다.

가묘家廟에 제사祭祀를 올렸다. 물이 불어서 물고기를 잡기도 어렵고, 난리가 극심하여 제육도 없어서, 다만 소찬素餐을 올렸으니, 슬프기 그지없도다.

선조 26년부터 30년에 이르기까지 제물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제사에 쓸 소가 기린처럼 귀하다는 묘사나, 가묘의 제사에 소찬만을 올렸다는 내용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선조 26년 2월 10일 할머니의 기제임에도 정경운은 비가 내려서 가지 못했는데, 당형堂兄이 빈곤하여 제사를 지내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한 사실을 기록하며 애통함을 표했고, 선조 27년 5월 18일은 아버지의

25 『孤臺日錄』 卷2, 갑오 5월 18일, 12월 10일; 을미 8월 13일; 정유 5월 5일.

휘일이었는데 전염병이 지속되어 제수祭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변변치 못하게 제사했음을 슬퍼하였다. 이렇듯 제수가 부족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슬퍼하는 내용은 12월 10일 조모의 제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며, 이듬해 선조 28년 5월 5일 선부군先父君의 사당에 술과 과일을 갖추어 제사할 때도 비참하다는 심정을 드러내었다.

정유재란 당시에는 더욱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었음에도 선조 31년 정월 29일 모친의 기제에 뒤편 밥 한그릇만 올려서라도 기제를 챙겼다. 하지만 2월 24일에 일본군의 함성이 매우 위급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외조부의 기제에는 뒤편 초차도 진설하지 못했고, 8월에 이르러서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서 부모와 외조부의 영전에 새 쌀로 밥 한그릇만 올렸다고 기록하였다.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제를 시행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서 소상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신위를 비워두고 허위에 지방을 사용해 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경운은 피난당시 부모의 신위를 매안하고 떠났고 선조 32년(1599) 정월 28일에 이르러서야 묻어두었던 부모의 신주를 확인했는데, 분칠한 면은 더럽혀져 훼손되었으나 나무는 상하지 않았다고 한다.²⁶

이처럼 정경운의 경험을 통해 전란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족한 제수로 제사를 이어가고, 피난길에 사망한 장모의 장례를 임시적으로 시행했던 사례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유재란까지 마무리된 시점에 이르러서도 어려운 상황은 여전했다. 정경운은 정유재란 때 피난할 당시 부모의 신주를 묻어두고 떠났고 다행히 이를 보존할 수 있었기에²⁷ 선대조의 신주를 모두 분실한 인동지역의 장현광에 비해

26 『孤臺日錄』 卷3, 기해 정월 28일.

나는 입장이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²⁸ 경제적 상황은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모두 갖추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는 3월 11일 한식에 곡식과 누룩이 없고 묘소에 쇠소할 여력도 없어 슬펐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²⁹

장현광은 모친의 상례를 치루던 중 전란을 맞게 되었고 당시의 상황을 『피난록避難錄』으로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조 25~27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난 중에 간략하게 제례를 수행하는 방법을 「분찬중사망의략奔竄中事亡儀略」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하였는데, 여기에서 장현광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정성이었다. 질박한 물건으로 제사하더라도 정결하게 정성을 다하면 선조께서 흠향한다는 것이었다.³⁰

장현광은 피난시에는 모든 의식을 평상시와 같이 수행할 수 없더라도 처한 상황에 맞추어 기제, 속절제, 천신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기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식절차를 제시하였고, 속절제와 천신에 대해서도 처해있는 상황에 맞추어 구할 수 있는 것을 올려서 간략히 행할 것을 제안했다. 묘제墓祭에 대해서는 피난 중이라도 왕래할 수 있는 지역에 있다면 묘제를 해야한다고 보았고 장현광 자신도 난을 피해 숨어있는 동안에 묘제를 중단하는 일이 드물었다는 경험을 소개하였다. 조고비祖考妣 이상의 묘소는 모두 성주에 있어서 전란이 발생한 이후 한 번도 찾아가 성묘하지 못하였지만, 고비考妣의 묘소는 인동에 있어서 성묘할 수 있었다고

27 위와 같음.

28 『龍蛇日記』卷1, 「避難錄」 선조 26년 6월 일 미상.

29 『孤臺日錄』卷3, 기해 3월 11일.

30 張顯光, 『旅軒先生續集』卷7, 「雜著」, 奔竄中事亡儀略.

한다.³¹ 비록 제물을 성대히 구비하지 못하더라도 대략 어포·육포, 고기와 과일 등을 장만할 수 있으면 갖출 것을 제안했고 임시적으로 술을 만드는 방법도 소개하였다. 찹쌀 몇 되와 누룩가루 몇 홑을 장만하여 밥 짓는 그릇에 넣어서 임시로 술을 빚었다가 하룻밤 지나 열어보면 간편하게 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³²

이처럼 장현광은 간결하게라도 제사를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쓰이는 물품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할 수 없는 물품을 대신할 만한 것을 구해서 쓰되 정결한 것을 쓰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신위神位를 진설할 때 굳이 왕골자리(茵席)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 음식을 진설할 때에도 제상과 소반을 구하지 못한다면 다른 것을 쓸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집에서 일상적으로 쓰던 왕골자리나 상, 소반은 정결한 것이 드물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것을 쓸 것을 권장했다. 일상 용품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깨끗한 대용품 쓰는 것이 더 정성에 가깝다고 여겼다. 기명器名 역시 마찬가지로, 유기鑪器와 사기沙器를 구할 수 없다면 버들고리 상자(柳筥)를 사용하여도 된다고 보았다. 장현광은 스스로 큰 대나무를 구하여 마디를 잘라 잔鬮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대나무가 없어 만들지 못하였던 경험을 소개하였다. 제물을 줄이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지만 피난 중에는 종이나 향조차도 쉽게 얻을 수가 없으니, 절차와 제수를 줄이고 대용품을 쓰더라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제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³³

31 인동에 있는 고비의 묘에는 선조 26년 6월, 성주에 있는 묘에는 선조 27년 3월에 찾아갔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龍蛇日記』卷1, 「避難錄」.

32 張顯光, 『旅軒先生續集』卷7, 「雜著」, 奔竄中事亡儀略.

33 張顯光, 위의 책, 같은 곳.

그리고 장현광은 임진왜란기에 본종本宗에 대한 제사뿐만 아니라 외조外祖 및 후사가 없는 가족에 대한 제사까지 돌보려 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정경운이 장인과 장모의 기제를 돌보았던 것과 유사하다. 장현광은 「분찬중사망의략奔喪中事亡儀略」에서 기제시행 방식을 서술하면서 만약 외조고비外祖考妣와 후사가 없는 자형姊兄과 누이, 누이의 아들 딸을 함께 제사하게 되면 먼저 본종本宗의 신위와 본종의 부위副位에 제사하고 철상撤床한 다음 다시 신위를 진설하여 외조고비 이하의 여러 신위에게 제사하도록 하였는데,³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형과 누이, 누이의 자녀들에 대한 제사결행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³⁵ 장현광과 정경운이 후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대신했던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을 안타깝게 여겨 제사했다는 것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정리하자면, 임진왜란이 발생한 직후 예안지역의 금난수, 함양지역의 정경운, 인동지역의 장현광은 지역별로 피해를 입은 정도가 달랐지만 모두 선대조에 대한 예를 다하려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전란 피해로 제수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간소하게라도 기제를 거르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장현광은 임시적으로 간략한 제사를 시행하는 방법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후손이 없는 사람을

34 張顯光, 위의 책, 같은 곳. “若并祭外祖考妣及無後姊夫姊氏及姊子姊女 則先祭宗位及宗祔位 既撤 又設位以祭外祖考妣以下諸位.”

35 李文樞은 『목재일기』에 후사없이 사망한 누나의 제사를 가끔씩 수행했던 기록을 남겼는데, 이를 통해 친정에서 후사 없이 사망한 딸의 제사를 담당했던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無子女亡女·無子女亡妻의 재산상속 문제와도 관련된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김경숙, 앞의 논문, 2000, 21~22쪽.

위해 대신 제사를 지내주기도 했는데, 정경운은 장인과 장모의 기제를 지내주었고, 장현광은 자형·누이, 그리고 그 자녀들의 제사를 지내주었다. 물론 16세기 관행에 따르면 제사를 봉행하는 자손은 봉사조(奉祀條)의 재산을 별도로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봉행하는 것은 재산 상속과 결부된 일이기도 하였다.³⁶ 하지만 자신의 목숨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전란기에 다른 이의 제사를 대신해주었던 것은 이러한 실리적 측면보다는 측은지심이 발현된 측면이 컸을 것이다.

3. 피난과정에서의 상례(喪禮) 시행 사례

선조 26년 7월 7일, 전란이 오래도록 끝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비변사에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을 출사시키는 기복(起復(起復出仕))을 요청하였다. 군량관련 업무를 위해 호조검판서 홍성민(洪聖民(1536~1594))을 기복시키려고 했지만 홍성민이 예를 다하겠다고 고집하며 나오지 않았고, 선조는 억지로 그를 기복시키지 말도록 하였다.³⁷ 전란 진압을 위해 업무를 수행시켜야 하는 중앙정부의 입장과 애통함을 다하려는 개인의 입장이 충돌했던 것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상황이 급박하니 대소무신(大小武臣)을 모두 기복시켜 전쟁에 종사시켜야 한다는 비변사의 요청을 허락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도 “개인의 상사 때문에 직사(職事)를 그만두게 할 수 없으니, 대소무장

36 이에 관해서는 권내현, 「역사학의 관점에서 본 16세기 유연 사건」, 『민족문화연구』 88(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157~159쪽.

37 『宣祖實錄』 卷40, 선조 26년 7월 7일(기미).

大小武將을 모두 기복하게 하고 연해변의 수령이 아니라도 직무를 잘 수행했던 사람은 기복하여 잉입仍任시키도록” 하자는 비변사의 요청을 수락하였다.³⁸ 전란으로 인해 개인의 상사를 돌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고,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예제의 문란을 초래했다고 파악하였다.³⁹

실제로 선조 27년(1594) 2월 선조는 경성의 백성 중에 일본군에게 죽은 사람이 많을 텐데 상복을 입은 자가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기며, 법사法司에서 규찰하여 백성들이 상복을 입게 하라고 전교했다고 한다. 이때 심희수沈喜壽(1548~1622)는 전란이 발생한 이후 상기喪紀가 문란해져서 어떤 이는 의병이라 핑계를 대고 마음대로 기복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부모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평상시처럼 고기를 먹고 있다며 윤리적 기강이 무너졌다고 한탄하였다. 장운익張雲翼(1561~1599)은 거상居喪하는 자가 고기를 먹고, 기복하면 흑의黑衣를 입어서 점점 오랑캐 풍속에 물들고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선조는 “국가에 중대한 관련이 있는 자는 조정에서 기복하게 하였지만 사람들이 모두 상복을 입지 않게 된 것은 자못 괴이한 일”이라 여기며, 일전에 긴급하게 무신과 무장을 기복시켰던 일을 백성들이 상복을 입지 않는 문제와 관련지었다.⁴⁰

이처럼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인 『선조실록』에 드러난 사례들을 통해서만 본다면, 임진왜란 기에 예제가 문란해졌던 상황이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임진왜란기

38 『宣祖實錄』 卷40, 선조 26년 7월 18일(경오); 권46, 선조 26년 12월 5일(갑인).

39 고영진, 『조선중기 예학사상사』(한길사, 1995), 175~181쪽.

40 『宣祖實錄』 卷48, 선조 27년 2월 14일(계해).

일기자료 연구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전란기의 양상은 지역과 개인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예제 시행에 있어서도 그러한 다양성을 보여준다. 선조 26년에 허락없이 기복하고 고기를 먹거나 상중에 관창(管絃)과 놀았던 관리들을 치죄하고 상중에 과거에 응시한 사람들을 치죄하여 문란해진 예제 질서를 바로잡으려 했던 사례를 통해 상례의 와해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⁴¹ 극한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경상도 지역의 사족들이 남긴 일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진왜란 발생 이전에 모친이 사망했지만 피난 중에도 상례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던 장현광의 사례나, 임진왜란 도중에 사망했던 금난수의 딸, 도세순의 모친, 정유재란기에 사망한 정경운의 딸의 사례를 통해 전란기에도 각자의 사정에 알맞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를 다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던 선조 25년 5월 22일에 금난수의 딸이 사망했는데, 5월 25일에 성복하고 6월 1일에 피신하기 위해 이동하면서도 상구를 챙겼다. 그런데 이동할 때 강물이 불어나서 상구(喪柩)를 뗏목에 실어 강을 건넌 다음 소를 빌어서 운반하였는데, 사위와 아들 금경·금개가 상구를 호상하여 갔다고 한다. 이 기록을 통해 딸의 상례를 금난수의 집에서 치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혼례 이후 처가에서 일정기간 머물다가 남편의 집으로 옮겨갔던 당시의 혼례 풍습을 짐작할 수 있다. 남귀여가혼에 따라 혼인한 후에도 친정에 머물렀으므로 친정에서 사망하면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⁴² 6월 16일에 일본군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난하는

41 이에 대해서는 고영진, 앞의 책, 186~187쪽.

시기에 딸의 상례를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11월에 이르러 딸의 산소를 살폈다고 한다.

경상도 성주 지역에 살았던 도몽기(都夢麒, 1542~1594)의 차남인 도세순이 남긴 『용사일기(龍蛇日記)』는 피난상황을 잘 담고 있으며,⁴³ 일부나마 피난기 기제나 상장례의 시행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도세순의 가족은 선조 25년 4월 13일 일본군이 대거 침입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피난을 논의하고 집안의 귀한 물건들을 땅에 묻고 옷과 식량을 챙겼고, 4월 29일에 이르러서야 사방에 불길이 치솟고 일본군의 살기가 등등하니 서둘러 피난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움직였다.⁴⁴

도몽기 일가는 피난하는 중이었음에도 선조 25년 5월 9일에 이르러 조부의 기일을 맞아 예주(醴酒)와 병(餅)을 마련하여 전(奠)을 올렸는데, 이때 인척인 도몽호와 그 가족들이 함께 기제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선조 26년 6월 11일에 도세순의 모친이 사망하였는데, 슬픔에 겨워 이에 대한 기록은 다 하지 못하였다. 선조 27년 6월에 이르러 모친의 소상을 준비하기 위해 형제들을 만나고, 굶주리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42 김윤정, 「조선중기 가묘제와 여성제례의 변화」, 『국학연구』 14(한국국학진흥원, 2009), 477쪽. 17세기 경상도 사족의 혼례시행 양상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주자가례』의 교배례는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여(親迎) 온 후에 신랑의 집에서 하는 것이지만, 17세기 경상도 사족들은 신부의 집에서 교배례를 하였고, 혼례를 한 이후에 부부는 우선 신부의 집에서 거주하였음을 검토한 바 있다. 김정운, 「17세기 경상도 사족의 혼례 방식」, 『한국사상사학』 56(한국사상사학회, 2017).

43 도세순의 가족관계 및 피난에 관한 연구는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김성우, 「임진왜란과 1593~1594년 계갑대기근 — 경상도 성주 도세순 집안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88(한국사연구회, 2020).

44 선행연구에 따르면 당시 도세순의 가족들은 다른 다섯 가족과 함께 움직였는데 각 가족구성원과 노비들까지 대략 100여 명이 함께 움직였을 것이라 추산하였다. 김성우, 위의 논문, 2020, 219~220쪽.

자구(資具)를 마련하고 예주(醴酒)·병(餅)·소식(蔬食)을 갖추었다. 6월 8일에 새벽 허위(虛位)를 진설하고 모친께 전(奠)을 올렸는데, 허위를 진설했다는 것을 통해 상황이 여의치않기 때문에 지방을 사용하거나 이조차도 마련하지 못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우박촌에서 와서 도세순의 모친 소상에 함께했던 배응보(裵應輔)의 처에게 떡을 대접하였는데 그녀가 “인자(人子)의 정(情)이야말로 귀한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서로 잡아먹는 이 시절에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올리다니, 기특하고 기특하다”며 탄식하였다.⁴⁵

인동 지역의 장현광은 선조 24년(1591) 10월에 모친상을 치루고 12월에 장사를 지낸 상태였는데 모친상을 당한 지 6개월 만에 전란을 맞게 되었다.⁴⁶ 4월 20일에 일본군이 인동에 거의 다다랐다는 소문을 듣고는 모친(先妣)의 궤(几)를 거두고 몸에 목주를 걸머지고 밤에 어둠을 타고 강을 건너 날뫼(飛山)로 갔다가 금오산 옆 형곡(荊谷)을 지나 깊은 산마을(효자봉)로 들어갔고, 함께 온 가족과 친척, 노비와 그곳 여막에서 지냈다. 이때 자리 잡은 언덕에 잡초를 베고 우막을 만들어서 이슬을 막고 우막 옆에 돌을 괴어 모친의 신주를 안치하여 아침저녁마다 가지고 있던 식량(餉)을 올렸다.⁴⁷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어도 목주를 붓짐에 넣어두지 않고 자리를 마련하여 모셨던 것이다.

장현광은 전란소식을 접하고 본능적으로 모친의 신주를 모시고 피난길에 올랐던 것이지만, 훗날 김장생 역시 송준길과의 문답과정에서 상중(喪中)에 피난을 떠나는 경우 신주를 모시고 떠나는 것이 옳다고

45 都世純, 『巖谷逸稿』 「雜著」, 龍蛇日記.

46 『龍蛇日記』 卷1, 「避難錄」 선조 25년 4월 19일, 6월 일 미상.

47 『龍蛇日記』 卷1, 「避難錄」 선조 25년 4월 21일.

주장하였다. 삼년상 중에 있는 경우는 조석으로 상식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신주를 모시고 가서 시행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⁴⁸

복상(服喪) 중이었던 장현광은 피난을 다닐 때 상복 차림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일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고자 농립(農笠)을 쓰고 해를 가렸다. 상중에 외출할 경우 방립(方笠)이나 패랭이를 써야했는데, 장현광은 피난 중에 이를 농립으로 대체하여 쓰고 다녔던 것이다. 그런 장현광의 모습을 보고 노인 두 명이 장현광을 진립(陣笠)을 쓴 일본군으로 오해하고 꿇어앉아 살려달라고 애걸했다고 한다.⁴⁹ 피난길에 상복을 대신해 농립을 쓰고, 등에는 목주를 지고 다니다가 손발이 트고 굶은살이 생겨 곤핍해진 장현광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겼다.⁵⁰

장현광은 인동을 떠나서 피난하는 중에도 머무르는 지역에서 소상(小祥)·대상(大祥)을 지내는 정성을 보였다. 선조 25년(1592) 9월에 이르러서 장현광은 누이가 우거하는 증산(龜山)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곳은 깊은 산이어서 일본군의 침입을 피할 수 있었다. 장현광의 누이와 자형 여륜(呂倫)은 전란 중에도 이곳에서 밭을 일구어서 소산이 넉넉했기 때문에 동생인 장현광을 불러 함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이곳에서 장현광은 자형의 도움을 받아 돌아가신 모친에 대한 예를 다할 수 있게 되었다.⁵¹

선조 25년 10월이 장현광 모친의 소상(小祥)이었는데, 자형이 여기에 쓰이는 여러 제수(祭需)와 연복(練服)을 지을 연포(練布)를 마련해주었다. 장현

48 宋浚吉, 『同春堂集』 別集 卷2, 「書」, 上沙溪先生.

49 『龍蛇日記』 卷1, 「避難錄」 선조 25년 9월 9일.

50 『龍蛇日記』 卷1, 「避難錄」 선조 25년 6월 4일. “以余背負神主 手足胼胝 困迫之狀 滿於形貌 故見者哀之也.”

51 『龍蛇日記』 卷1, 「避難錄」 선조 25년 9월 21일.

광은 피난을 다닐 때 항상 상복喪服을 짊어지고 다녔는데 묵방사墨坊寺에 있을 때 병이 심해져서 눕어지고 다니기 어려워 절간에 두었다. 이때 일본군들이 와서 피난민들을 수색하고 장현광의 상복을 훔쳐보았지만 다행히 찢거나 훼손시키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대곡大谷에서 머물던 집에 상복을 두었을 때 수색하던 일본군들이 이것을 열어보고는 상복의 연미燕尾를 찢고 상복을 찢 보자기와 함께 가지고 가버렸다. 장현광은 자신이 부모 잃은 몸으로 슬픔을 끊고 전천奠薦을 충실히 하지 않아서 하늘이 노하여 적들의 횡포한 짓을 통해 자신을 훈계했다고 자책했다. 선조가 전란의 피해를 입은 경성 백성들 가운데 상복 입은 사람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는데,⁵² 이는 상례가 문란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장현광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난 과정에서 상복을 입기가 어렵거나 이를 준비할 여력이 없어 부득이 예를 다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장현광은 온갖 고초를 겪고 상일禫日에 이르러서야 자형의 도움으로 연복을 짓고 제수를 마련하여 소상을 지낼 수 있었고, 본래의 절차에 따라 의식을 수행하였다. 피난과정에서 모친의 소상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던 장현광은 “누님과 함께 곡하며 작을 올리니 마음의 다행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당시를 소회하였다.⁵³ 이듬해인 선조 26년(1593) 정월 원일元日에도 누이 집안에서 제수를 마련해주어서 곡전奠奠할 수 있었다.⁵⁴

선조 26년 1월 9일에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는데,⁵⁵ 이때

52 『宣祖實錄』 卷48, 선조 27년 2월 14일(계해).

53 『龍蛇日記』 卷1, 「避難錄」 선조 25년 10월 일 미상.

54 『龍蛇日記』 卷1, 「避難錄」 선조 26년 1월 1일.

장현광은 팔거八耨를 거쳐 인동에서 의성으로 갔고,⁵⁶ 임이중任而重에게 시집가 그곳에 살고 있는 누이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선조 26년 10월 선비先妣의 재기再耨를 준비하는 일도 누이 집안에서 제수를 마련해 주었고, 재기 때 만누이도 탄지炭池에서 왔기에 두 누이와 두 조카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 재기가 끝나고 조카들은 돌아갔고 만누이는 장현광이 함께 복제를 마치자고 청하였기에 남았다.⁵⁷ 장현광은 모친의 상을 치룬지 여섯 달 만에 전란을 맞아 상복을 여섯 달밖에 입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좀 더 복을 입고 싶은 심정을 드러냈지만, 예의 규정에서 어긋나는 일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장현광은 효심孝心보다는 고례古禮에 정해져있는 격식을 고수했는데, 김경장金慶長이 대상 후에도 조석상식朝夕上食을 올리려고 하자, 장현광이 ‘효심의 무궁함은 알지만 고례에 정해진 격식이 있으니 후인後人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더할 수 있겠냐고 말했던 태도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⁵⁸ 장현광은 모친에 대한 담제禫祭를 준비하기 위해 외가쪽 친척인 진보현감을 찾아가 제수를 구하였고, 현감은 약간의 제물祭物을 주어 도와주었다.⁵⁹ 선조 26년 10월이 윤달이어서 12월에 날을 받아 담제를 지냈고 이후 만누이는 탄지로 돌아갔다.⁶⁰

55 『宣祖實錄』卷34, 선조 26년 1월 9일(갑자).

56 『龍蛇日記』卷1, 「避難錄」 선조 26년 6월 초.

57 『龍蛇日記』卷1, 「避難錄」 선조 26년 10월 일 미상.

58 張顯光, 『旅軒先生續集』卷2, 答金慶長 二節. 이에 관해서는 장동우, 「旅軒 張顯光의 禮說과 禮學의 問題意識」, 『유교사상문화연구』 24(한국유교학회, 2005), 119쪽 참조.

59 『龍蛇日記』卷1, 「避難錄」 선조 26년 10월 일 미상.

60 위와 같음.

이처럼 장현광은 모친의 목주를 모시고 피난하던 중 일본군의 피해를 입지 않은 곳에 머무르는 누이의 도움으로 소상을 치룰 수 있었고, 대상과 담제 역시 주변에서 도움을 받았다. 『피난록』에 상세한 제사 수행의 과정은 기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제물을 갖추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형편에 따라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 수행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선조 30년 정유재란기에는 함양지역으로 일본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경운도 피난길에 올라야했다. 일본군이 가까워온다는 소식을 들은 정경운은 부모의 목주를 묘 옆에 묻었고, 8월 8일 동이 틀 무렵 가족과 여러 아낙네들을 이끌고 개심사(開心寺)로 피난했다. 당시 일본군이 구례와 남원 등을 경유하여, 8월 16일에 이르러 함양에 들어와 노략질했고,⁶¹ 이 과정에서 정경운의 딸은 절개를 지키고자 일본군에게 대항하다가 사망하였다.⁶²

조카가 산에서 정아(貞兒)의 시신을 찾았다. 목이 반 이상 잘린 채로 바위 사이에 넘어져 있었는데, 갖고 있던 패도와 손이 모두 평소와 같았다. 오호라! 내 딸이 어찌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는가. 내가 처음 왜적들이 곳곳에서 출몰한다는 말을 듣고 패도를 주면서, ‘만약 불행하게도 네가 왜적을 만나면 적을 따르지 말라’고 하였다. 이후로 한 번도 머리를 빗지 않고 얼굴도 씻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큰 도적이 지금 왔으니, 제가 반드시 산다고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매번 하였는데, 줄지에 흉적을 만나서는 우뚝 서서 겁 없이 적노(賊奴)를 욕하고 꾸짖으며 목숨을 버려 절개를 온전히 하였다.

곤도다! 내 딸이여,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구나. 오호라! 네가 삶을 버리고

61 『孤臺日錄』 卷2, 정유 8월 11일·13일·16일.

62 『孤臺日錄』 卷2, 정유 8월 21일.

의를 택했으나, 참으로 잘한 일이구나. 하지만 나는 딸 하나도 능히 구하지 못해, 흉한 칼끝에서 너를 죽게 했다. 손을 붙들고 피난하여 시작과 끝을 함께하고자 했으나 그러지를 못했구나. 죽은 후에 황천에서 손잡고 다시 만날 때, 나는 진실로 너만 못하니, 무슨 면목으로 너를 위로할까! 네가 높게 세운 절개는 내 그 뜻을 글로써 분명히 전할 것이다. 의복을 모두 잃어버려 시신을 염하는 도구가 초라하기 짝이 없으니, 통곡하고 또 통곡한다.

정경운은 지조를 지키다가 죽은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애통해하였다. 피난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상례를 치루었는지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9월 8일 전물(奠物)을 준비해 가서 딸의 널 앞에서 곡을 했는데, 궁벽한 산에 뼈를 묻은 지 20일이 넘었다고 기록되어있다.⁶³ 아마도 딸의 시신을 발견한 8월 21일경에 거의 곧바로 매안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정경운의 딸과 같이 절개를 위해 죽음에 이른 사례와 유사한 경우는 조정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선조 26년 유성룡이 양주의 백성 임환수의 딸이 절의를 위해 죽은 사례를 언급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⁴

우리나라는 병란 때에 여자로서 절의(節義)에 죽은 자가 아주 많습니다. 신이 전에 동파(東坡)에 있을 적에 양주(楊州) 백성 임환수(林環壽)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처가 두 딸을 데리고 왜적을 피하여 도봉산에 들어갔다가 두 딸이 모두 적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막내딸 향옥(香玉)은 당시 나이가 16세였는데 그 어미더러 말하기를 ‘언니는 적을 따라가는데 저들에게 시집가려는 것입니까? 꼭 아버지에게 말하여 내 시체나 거두게 하소서.’ 하고는 드디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었다고 하니, 비록 청풍령의 일인들 어찌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63 『孤臺日錄』 卷2, 정유 9월 8일.

64 『宣祖實錄』 卷48, 선조 27년 2월 14일(계해).

선조는 이 같은 사례는 포장褒獎되어야 한다고 공감하였다. 이후 선조 28년(1595) 예조에서는 정표旌表할 만한 사람의 사적을 인쇄하여 나라에 반포하면 사람들의 의열義烈을 격려시킬 수 있을 것이라 아뢰었고, 선조는 전사한 충신은 물론 효자와 열녀의 사례도 뽑아서 기록하여 인출하도록 전교하였다.⁶⁵ 광해군 9년(1617)에 임진왜란으로 무너진 사회질서를 회복하고자 『동국신속삼강행실東國新續三綱行實』을 간행하여 반포하였는데,⁶⁶ 여기에는 일본군으로부터 정절을 지키려 했던 여러 여성들의 사례가 수록되었다. 그리고 ‘두 부인이 강에 투신하다’(二婦投江)라는 제목으로 임진왜란 때 대구부사 윤현尹峴의 부인 김씨와 아들 기지器之, 며느리 박씨가 선조先祖의 신주를 일본군에게 더럽히지 않기 위해 피신시키려다 강에 빠져 죽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선조의 신주를 지키는 일을 목숨과 같이 여겼던 당시의 사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⁶⁷

정리하자면, 전란으로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상례를 시행하려 했던 경상도 지역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피난 중에도 목주와 상복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사망한 모친에 대한 예를 다했던 장현광의 사례나, 전란 중에 사망한 모친의 소상을 준비했던 도세순의 사례, 피난 중에 속리산 초막에서 사망한 정경운의 장모, 정유재란 중에 일본군에 대항하며 지조를 지키다가 사망한 정경운의 딸의 사례를 통해, 피난 중에 제례를 시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망자에 대한

65 『宣祖實錄』 卷65, 선조 28년 7월 19일(경인). 정표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박주, 『조선시대의 정표정책』(일조각, 1990) 참조.

66 『光海君日記』[重草本] 권113, 광해 9년 3월 11일(병자).

67 『東國新續三綱行實』「烈女圖」 卷2, 二婦投江.

예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엿볼 수 있다.

『선조실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선조가 환도하면서 전란 중임에도 백성 중에 상복입은 자가 드물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예가 문란해졌다는 우려를 표했던 사례나, 실제로 상중에 과거에 응시하거나 마음대로 기복하고 육식을 했던 사례도 있었지만, 경상도 지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것과 같이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예를 다하려 노력했던 모습도 병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란기를 거치면서 단순히 국가의 예제가 전체적으로 문란해졌다고 일반화할 수 없으며, 지역별로 혹은 개개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긴 시간 전란을 겪은 이후 국가에서는 예제를 회복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고, 사족들은 각 지역 및 학파에 따라 예학 연구에 집중하여 이해에 진전을 이루었다.⁶⁸ 이러한 양상은 17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던 경상도 지역 예서禮書의 규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⁶⁹

4. 결론

경상도 지역에서 임진왜란의 경험을 기록했던 일기자료를 바탕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제례와 상례를 수행했던 양상을 검토해본 결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이어졌던 7년의 전란기를 단순히 예제가 무너져

68 장동우, 「조선후기 가례 담론의 등장 배경과 지역적 특색 — 『주자가례』에 대한 주석서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13(한국국학진흥원, 2008).

69 남재주, 『조선후기 영남 예학 연구』(도서출판3, 2019).

갔던 시기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안지역의 금난수는 예를 다할 수 있는 시기에는 일상과 마찬가지로 조상의 기제를 챙겼고, 함양지역의 정경운은 제사를 지낼 후손이 없었던 장인과 장모의 기제까지 대신하였으며, 인동지역의 장현광은 전란 중에 사망한 자형·누이, 그리고 그 자녀들의 제사를 대신 지내주었다.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시행양상은 달랐지만 선대조에 대한 예를 다하려 노력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란 피해로 제수를 마련하기 어렵더라도 간소하게 기제를 지속하려 하였고, 장현광은 임시적으로 간략한 제사를 시행하는 방법을 「분찬중사망의략(奔喪中事亡儀略)」으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16세기의 관행에 따르면 제사를 봉행하는 자손은 봉사조(奉祀條)의 재산을 별도로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 봉행은 재산 상속과도 결부된 일이었지만, 자신의 목숨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전란기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실리적 측면보다는 망자에 대한 측은지심이 발현된 측면이 컸을 것이라 본다.

전란 당시 경상도 지역의 상례 시행 역시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예를 다하려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선조실록』을 통해 전란기에 무단으로 기복하거나 상중에 상복을 제대로 입지 않고 육식을 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장현광은 피난 과정에서 상복을 짊어지고 다녔고 상중에 있는 몸으로 예를 다하기 위해 농림으로 해를 가리고 다니다가 전투갓을 쓴 일본군으로 오해받기도 하였다. 선조는 전란 중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상복입은 백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예가 문란해진 것이라 의심했지만, 장현광의 상례 시행양상을 보면 피난중인 백성이 상복을 입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란기에 중앙정부에서

백성들의 상기가 문란해졌다고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피난 과정에서 상례를 수행하는 데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간략히 수행하거나 중단해야 했던 사정이 있었다. 이렇듯 정부와 백성들의 입장에는 간극이 존재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교차적인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비록 경상도 지역의 몇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일부의 경향을 검토해내는데 그쳤지만, 향후 경상도 외 여러 지역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전란기 사족의 의례시행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022. 02. 15 : 논문투고

• 2022. 02. 23 ~ 03. 13 : 심사

• 2022. 03. 15 :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

참고문헌

- 고영진,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 남재주, 『조선후기 영남 예학 연구』, 도서출판 3, 2019.
- 박 주,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일조각, 1990.
- 이연순 외 5명, 『성재일기 — 16세기 재지 사족의 올곧은 삶과 문화의 기록』, 은행나무, 2020.
- 남명학연구원, 『고대일록』, 태학사, 2009.
- 한국국학진흥원, 『성재일기』, 영남사, 2019.
- 김사엽 역, 『龍蛇日記』, 『김사엽전집』 13, 박이정, 2004.
- 권내현, 「역사학의 관점에서 본 16세기 유연 사건」, 『민족문화연구』 8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 김경숙,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제사설행과 그 성격 —李文樾의 『默齋日記』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98, 일지사, 2000.
- 김성우, 「임진왜란 초기 制勝方略戰法の 작동방식과 상주 북천 전투」, 『한국사연구』 163, 한국사연구회, 2013.
- _____, 「임진왜란 시기 구미지역의 참상과 전쟁의 극복 양상」, 『역사학보』 230, 역사학회, 2016.
- _____, 「임진왜란과 1593~1594년 계갑대기근 — 경상도 성주 도세순 집안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88, 한국사연구회, 2020.
- 김윤정, 「조선중기 가묘제와 여성제례의 변화」, 『국학연구』 14, 한국국학진흥원, 2009.
- 김정운, 「17세기 경상도 사족의 혼례 방식」, 『한국사상사학』 56, 한국사상사학회, 2017.
- 노영구, 「총론: 전쟁과 일상 — 『孤臺日錄』을 통한 임진왜란 이해」, 『역사와 현실』 64, 한국역사연구회, 2007.
- 문숙자, 「임진왜란으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 박인호, 「임진왜란기 지방 지식인의 피난살이 — 장현광의 『용사일기』를 중심으로」, 『여헌학의 전개와 수용』, 보고서, 2010.
- 박종천, 해제 『성재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19.
- 송재용, 「『목재일기』와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의 관·훈·상·제례」,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2010.
- 신진혜, 「임진전쟁기 종묘의 소실과 재건 과정 연구」, 『역사학보』 240, 역사학회, 2018.
- _____, 「임진왜란기 張顯光(1554~1637)의 피난 중 喪·祭禮 시행양상」, 『韓國實學研究』 40, 한국실학학회, 2020.
- 원창애, 「『고대일록』을 통해본 함양 사족층의 동향」, 『남명학연구』 33,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2.
- 이성임, 「16~17세기 일기의 傳存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89, 조선시대사학회, 2019.
- 이훈상, 「어느 지방 吏胥의 임진왜란 증언과 전승 — 경상도 인동의 향리 劉席珍과 그의 임진왜란 일기」, 『영남학』 21, 영남문화연구원, 2012.
- 장동우, 「旅軒 張顯光의 禮說과 禮學的 問題意識」, 『유교사상문화연구』 24, 韓國儒敎學會, 2005.
- _____, 「조선후기 가례 담론의 등장 배경과 지역적 특색 — 『주자가례』에 대한 주석서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13, 한국국학진흥원, 2008.
- 정해은, 「임진왜란 시기 경상도 사족의 전쟁 체험」, 『역사와 현실』 64, 한국역사연구회, 2007.
- 최은주, 「조선시대 임진왜란 일기자료의 현황과 傳存 양상」, 『한국민족문화』 7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Abstract

The implementation and meaning of aristocrat's rituals in Gyeongsang-do during the Japanese Invasion(1592)

Shin, Jean-hae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general, it has been recognized that morality and rituals were disturb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1592). However,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cases focusing on the personal diary record written by aristocrats in Gyeongsang-do, which conveys the situation at the time, people faithfully carried out funeral rites and rituals.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seven-year war period as simply an 'inactivity period of morals and rituals'.

King Seonjo suspected that even though there were many deaths during the war, the funeral culture was disrupted, citing that no people were seen in mourning. However, it was not easy for the evacuating people to wear mourning clothes when Jang Hyun-kwang conducted a funeral during evacuation. Looking at the situation in Gyeongsang-do based on the personal diary, it was found that even if it was difficult to prepare ancestral rites due to the damage caused by the war, they tried to continue the ritual, and even during evacuation, they tried to

carry out funeral rites. Through this, it can be summarized that although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was a theoretical development during the war, it was accumulating ritual experiences in unusual situations from an empirical perspective.

Key words

: Japanese Invasion, funeral rites, ancestral rites, Gum Nansu, *Sungjaeilgi*, Jeong Kyungun, *Godaeilrok*, Do Sesoon, *Yongsailgi*, Jang Hyunkwang, *Pinanrok*